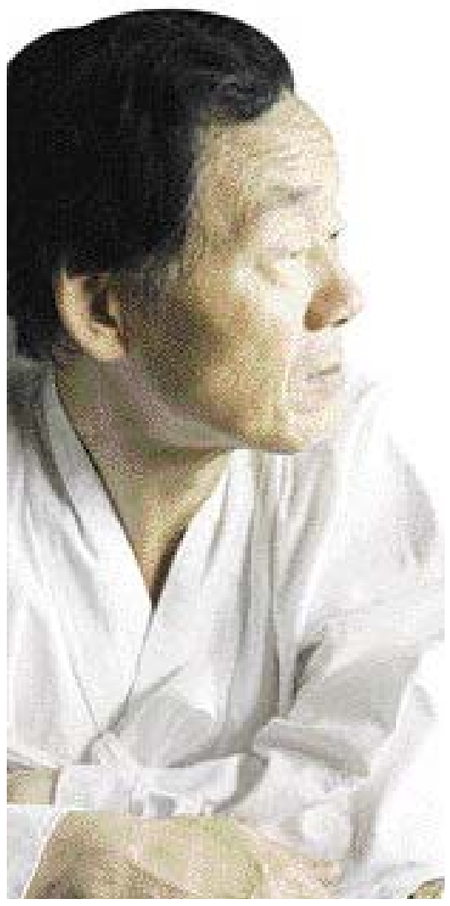
북스

Books



추사 한승원 지음

神筆뒤에 가려진 秋史의 삶과 예술

고향 장흥에 토굴을 꾸리고 소설 집필에만 전념하고 있는 한승원(68)씨가 '키조개' 이후 1년도 안돼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의 삶을 다룬 역사소설 '추사'(전 2권)를 출간했다.

3권짜리 역사소설 '원효' 이후 1년 만에 다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팩션(fact+fiction=faction)을 낸 것이다. 최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김훈의 '남한산성', 신경숙의 '리진' 등의 베스트셀러 역사소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한씨는 "지난 2003년 '초의'를 탈고한 이래 줄곧 초의선사의 절친한 친구 추사가 머리에 맴돌았다"며 출판계 유행에 편승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다만 "역사소설의 유행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원효' 탈고 후 이번 소설을 쓰는 2년 동안 한씨는 추사와 동일인물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파고 들었다. '추사집', '완당전집' 등 추사의 저서는 물론 추사를 다룬 거의 모든 책들을 독파했고, 세미나와 토론회에도 모두 쫓아다녔다. 한씨 스스로 추사가 돼 꿈 속에 등장한 것만도 수차례다.

한씨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여행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추사 생각을 했다. 또한 추사의 눈으로 보고, 추사의 코로 냄새 맡고, 추사의 귀로 들으면서 추사의 머리로 사유했다"고 말했다.

왜 추사일까. 추사는 알려진 것처럼 양반 가문의 아들로 유복한 삶을 살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 말년에 유배당한 '오만한 천재'가 아니라고 한씨는 단호하게 말한다.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한 북학파의 선구자였으며 외척의 세도를 제치고 왕권 강화를 부르짖은 개혁 세력이었다.

"당시 그를 제거하려 했던 세력들에게서 오늘날 이 땅의 어떤 거대한 보수세력을 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추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 슬픈 반복을 스스로 각성하고 경계하고 싶었습니다."

소설에는 신필(神筆) 뒤에 가려진 추사의 다른 얼굴이 그려져 있다.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상처를 안은 채 유배지에서 고통 속에 치열하게 분투하는 추사의 모습은 '천재 서예가'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번 소설에서도 한씨가 줄곧 천착했던 존재의 시원(始原)에 대한 고민이 읽힌다. 일흔을 넘긴 추사가 제 몸을 살로 지지면서까지 공을 들여 써놓은 글씨 '판전(板殿)'은 일곱 살의 나이에 체재공을 감탄시켰던 '입춘대길(立春大吉)'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서도 아니고, 전서도 아니고, 예서도 아니고, 행서도 아닌 글씨. 아니, 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 전서라고 할 수도 있고, 예서라고 할 수도 있고, 행서라고 할 수도 있는 글씨"(46쪽).

그래서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단어 '아무(我无·나 없음)'는 추사가 숨을 거두기 전 그려놓은 동그라미의 태허(太虛·하늘)와 다시 맞닿아 있다. 한씨는 "수없이 다가온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인간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다. '추사'를 음미하며 읽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열림원·각 권 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초등학생용 통합논술

세계명작 10권 출간

초등학생을 위한 '통합논술 多지식 세계 명작' 시리즈 10권이 출간됐다.

시리즈는 50권까지 이어질 예정. 단순히 명작의 내용을 익히는 수준을 벗어나 과학, 예술, 지리, 역사, 문화 등 분야별 논제를 뽑아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각 권의 마지막은 별도의 논술 섹션을 마련해 예·복습을 수월하게 했다. 어려운 어휘나 표현을 쉽게 풀어 독서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배려했다.

▲줄거리와 주인공, 주제 이해하기 ▲관련 지식 키우기 ▲창의력, 상상력 키우기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기르기 ▲생각과 주장 논술하기 등 5단계로 논술의 지름길을 제시한다.

〈대교베텔스만·9천500원〉

한반도 집창촌 130년 역사 보고서

유곽의 역사 홍성철 지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성매매업이라는 말처럼 성매매와 집창촌(集娼村)의 역사는 인류 문명발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아프로디테 신전에 성매매 여성 1천명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진 1876년 시작된 한반도 집창촌 문화는 이제 130년을 넘어섰다

전직 언론인 홍성철씨가 쓴 '유곽의 역사'는 성매매 현장인 한국의 집창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가에 대한 꼼꼼한 보고서다. 저자는 집창촌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말한다.

책은 한때 아시아 최대의 매춘거리로 유명세를 떨쳤던 부산 완월동 집창촌의 전신인 야미산하 유곽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오늘날 한국 집창촌의 원조는 일본식 유곽(游廓)이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부산항 등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거류민단을 설치했다.

민단에서 처음 벌인 성매매 업소 유곽의 설치는 민단 재정 확보가 명분이었다. 처음에는 일본 여성들이 성매매를 했지만 이후에는 가난한 조선 여인들도 몸을 팔기 시작했다. 저자가 구분짓는 개항지 유곽시대(1876~1905) 풍경이다.

이어지는 건 '철도유곽 시대'(1906~1930)다. 철도역에는 자연스럽게 유곽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공창제가 도입된 것도 이 시기다.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까지 15년간 계속된 '전쟁유곽 시대'(1931~1945)는 일본 제국주의 팽창정책인 위안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쟁형 매춘 시장'으로 불렸다.

저자는 이후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생성되기 시작한 기지촌 문화가 뿌리를 내렸던 '사창전국시대'(1946~1961), 텍사스촌이 전성기를 누렸던 '특정지역 시대'(1962~1980), 산업형 성매매·티켓다방 등이 성행했던 '신사창시대'(1981~2004) 등을 거쳐 현재 집창촌의 모습과 미래를 이야기한다.

책은 신문에 등장한 관련 기사와 채만석의 '탁류', 임권택의 '노는 계집 창' 등 문학과 영화속 집창촌의 풍경도 소개하며 광주 대인동 골목, 목포 사쿠라마치, 동두천 기지촌 등 전국 집창촌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따로 실었다.

〈페이퍼 로드·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포옹=정호승 시인이 '이 짧은 시간 동안'(창비) 이후 3년 만에 펴낸 9번째 시집. 전체 66편 중 절반이 넘는 40편이 미발표작이다. 늙음과 죽음 충동, 자살, 장례, 등의 소재를 이용해 삶과 죽음의 불가해함을 응시와 기다림 등 시인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다.〈창비·6천원〉

▲논리의 미궁을 탈출하라=청소년을 위한 '철학 판타지' 소설 시리즈 첫 번째. 2권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라'도 동시에 출간됐다. 10권까지 출간될 예정. 청소년 문학가 좌백(본명 장재훈)이 쓰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감수한 것으로, 재치있는 이야기로 철학의 개념을 쉽게 풀었다. 〈마리북스·9천500원〉

▲강아지가 궁금해=미국의 유명 수의사 마티 베커와 애완동물 전문 컬럼니스트 지나 스패더 포리가 쓴 애완견 실용서적. '고양이가 궁금해'도 동시 출간됐다. 애완견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101가지 질문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펜타그램·1만2천원〉

▲소설 사마천=중국 예술연구소 커원후이 교수가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의 일생을 소설로 엮었다. 한 무제가 '사기'를 불태우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이 소설은 사마천이 왜 황제의 질투를 받아야 했는지 설명한다. 웅대한 스케일로 사마천의 삶을 되살렸다. 〈서해문집·1만3천500원〉

▲부의 이동=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의 선임고문으로 '포춘'지가 선정한 '새로운 세기의 비즈니스 리더'로 뽑힌 에릭 바인하커의 경제경영서. 저자는 최근 경제학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 일관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부의 창출을 위해 경제 주체가 해야할 일을 보여준다. 〈랜덤하우스·2만8천원〉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영화 칼럼니스트 김서영씨가 영화 속 정신분석을 끄집어낸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정신분석'이 '영화'를 매개로 한 저자의 설명에 친숙하게 다가선다. 주인공의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은행나무·9천원〉

▲빛의 환타지아=명지대 교통공학과 임성빈 교수가 물리학, 생물학, 고고인류학, 역사학 등을 아우르는 자연과학서를 출간했다. '현대과학으로 본 창세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우주의 생성과정에서 현재까지를 다룬 우주와 지구, 인류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다. 〈환타지아·4만9천900원〉

▲숙종 조선의 지존으로 서다=조선일보 이한우 기자의 '이한우의 군주열전' 시리즈 다섯 번째 책. 숙종은 잦은 당쟁과 얽힌 후궁 관계로 '호색한'의 누명을 쓰고 있지만, 조선의 임금 중 가장 '순수 권력'에 가까웠으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삶을 산 '조선의 지존'이었다고 말한다. 〈해냄·1만3천원〉

▲제목을 못 정한 책=콜라 병마개를 딸 때 '펩'하는 소리의 원음을 만들어 콜라 회사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한국 광고 소리의 대부' 김벌래씨의 40년 소리 인생을 모은 에세이. 신명나게 일한 천재의 삶이 신선하다. 2쇄부터 독자 공모를 통해 정한 제목이 달려질 예정이다. 〈순정아이북스·1만2천원〉